

베드로의 회복

핵심 구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5

선별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8:15-18, 25-27; 21:15-17

부활하신 후 사십 일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간헐적으로만 보이셨지만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승천하신 후 그들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건 중 하나는 “티베리아스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1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하신 후 기적적인 어획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해변에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그곳에서 계신 낚선 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확신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1:3-6

행동파였던 베드로는, 이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일로 여전히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안고 있었기에,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해안으로 향했으나,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기다리며,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배가 해변에 닿아 모든 것이 단단히 고정되고 안전해졌을 때, 낚선 이가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는 지친 이들에게 “와서 함께 식사하라”고 초대했다. 요한복음 21:7-12

세 번에 걸친 비슷한 질문 중 첫 번째에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일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마음이 상했다. 그가 대답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6,17

베드로를 떠올리면,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스승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얼마나 찢렸을까요? 그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입에서는 저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마태복음 26:69-75). 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깊은 교훈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사실상 그를 안심시켜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주님의 합당한 종으로 회복된 후 자신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을 희생의 제단에 바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일에서 공정하고 의로우며 순결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할 것입니다. 시편 136:1-26